

앞장서는 용기, 뒤따르는 지지 그러나 결코 '완벽했다' 단언하지 않으며¹⁾

권혜주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학생²⁾

난데없이 계엄령이 떨어진 12월 3일, 나는 TV를 통해 한 사람의 목소리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와 동시에, 어떠한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무장한 군인의 총구를 맨손으로 틀어쥐는 시민들을 마주했다. 그 순간 나는 광장으로 부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위험천만한 국회를 향해 망설임 없이 전진한 시민들에게 목숨을 빚졌기 때문이다.

첫걸음은 나의 작은 광장, 숙명여대였다. 계엄 선포 바로 이틀 뒤인 12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 제2캠퍼스 앞에 약 300명의 학우가 모였다. 서로 이름도, 전공도, 살아온 배경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우리들은 어깨를 맞대고 당당히 섰다. 하나 된 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에게 귀중했을 '용산'에 민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이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북적이는 사람들로 드넓은 광장이 가득 찼다. 바람에 필릭이는 깃발들 사이를 걸으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왔을지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디를 향해 갈지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기에 이 낯선 사람들도 전부 '우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공고하다 믿었을 그의 권력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을 것이다.

광장으로 향하는 걸음은 절대 가볍지 않다. 어떤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에,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잔혹한 피의 희생을 기억하기에. 하지만 이런 걱정들도 광장에 들어서면 전부 녹아내리고 만다. 소중하게 챙겨 든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과 바투 붙이고 얹은 어깨들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를 비집고 앉은 나와 여기 모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피부로 와닿는 생생한 연대와 책임을 실감하면, 그 숭고한 가치의 현현을 마주하면, 다른 고민들은 전부 걸음으로 밀려나 버리고 만다. 그것이 광장이 주는 힘

1) 본 원고는 2025년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연구소의 [민주주의의 창의적 실현을 위한 발표]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원고임.

2) from_kwon@sookmyung.ac.kr

이다.

진정 빛났던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존재가 모였다는 것이다. 단단히 손을 잡고 앞장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는 윤석열 정권이 가장 멸시했던 집단이다. 사회의 모서리로 밀려 차별받고 혐오 당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왔다. 투쟁과 연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정의를 향한 의지 앞에서는 어떤 차별과 혐오도 힘을 잃는다. 광장 안에서만큼은 약자와 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래 부를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두 사람이 짓밟는다고 짓밟히는 것도 아닐뿐더러 한두 사람이 일으켜 세운다고 쉽게 곧추서지도 못한다. 후독했던 지난겨울은 이 사실을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각인시켰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 이 성취는 분명 국민 모두의 것이다. 마음껏 안심하고 기뻐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이 값진 승리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 완벽했노라 자만하고 싶지도 않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윤석열의 기만적인 비상계엄과 국민의 결집을 계기 삼아, 오랫동안 고여 썩어가고 있는 권력 구조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시 세운 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외면해 온 과제들을 직시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 인권과 장애인, 소수자의 인권이기도, 한국 경제이기도, 초고령화와 저출생이기도, 혹은 이름조차 붙여지지 못한 채 끓아가는 상처이기도 하다. 이 모든 당면 과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잔혹한 겨울 앞에 놓이고 말 것이다. 지반을 단단히 하지 않는 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불의를 인지하고 묵인하지 않는 용기, 안개처럼 미지한 길을 먼저 앞장서 나가는 걸음이 있기에 민주주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뜻을 지지하고 행렬에 발맞추며 뒤따라가는 시민들이 있기에 민주주의의 불은 오래오래 타오른다. 하지만 그 긴 여정에 낙오되는 이는 없는지, 누군가를 밀친 자리에 내가 앉아 쉬고 있지는 않은지, 앞서 걷는 이의 방향이 옳은 것은 맞는지 언제나 경계하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민주주의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길목마다 토론하고 사고하며 우리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모두가 기꺼이 험난해지고자 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새 강인해지고 있다.